

◇EEA 봉합기를 이용한 식도재건술의 임상적 고찰

정태열, 이철범, 신성호, 함시영, 백홍규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

배경 및 목적 : 식도재건술후 문합부 유출을 줄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EEA 봉합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문합부 협착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. 저자들은 최근 식도재건술시 가능한한 큰 직경의 EEA cartridge 를 사용하여 문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술 수기상 EEA 접근이 어려운 위치이거나 식도 내경이 좁아 EEA 25 mm 삽입이 어려운 경우는 3-0 prolene 으로 단층단속봉합을 하였다. 본 연구는 EEA 봉합기 사용후 문합부 협착의 발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방법 : 1996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32개월 동안 27예의 식도재건술을 시행하였다. 23예는 대용 식도로 위장을 사용했으며 대부분 정중개복후 우측 개흉의 Ivor Lewis procedure를 하였다. 식도절제와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3예는 공장을, 식도절제와 위아전절제술[antrectomy]을 시행한 부식성 협착1예는 좌측 결장을 사용하였다. 좌측 결장 사용시 식도-결장 문합은 단층단속의 수기봉합으로 결장-위 문합은 31 mm EEA를 사용하였다. EEA 문합은 21예로 25mm 10예, 28 mm 9예, 31mm 2예였다. 공장-공장과 결장-결장 문합은 이중 수기봉합을 하였다. 나머지 식도-위 문합은 단층단속 수기봉합을 하였다.

결과 : EEA 봉합기를 이용한 21문합중 1예[4.76 %]의 문합부 유출과 1예[4.76 %]의 수술 사망이 있었다. 사망예는 식도와 위장의 동시성 이중원발암 환자로 문합시 EEA 중심봉 또는 다른 수술 기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문합부 1 cm 하방의 공장 천공이 사망의 원인이었고 술후 30일에 사망하였다. 나머지 19문합의 추적검사상 25 mm 3예, 28 mm 4예 총 7예[36.84 %]의 높은 문합부 협착이 있었고 1-4 회의 풍선확장술이 필요하였다. 평균 추적기간은 12.37 개월이었다. 식도의 단층단속 수기봉합 7문합중 1예[14 %]의 수술 사망이 있었다. 식도이중강에 의한 식도 협착 환자로 호흡부전과 감염의 병발로 술후 26일에 사망하였다. 나머지 6예의 문합부 유출이나 문합부 협착은 없었다. 평균 추적기간은 10.5 개월이었다.

결론 : EEA 봉합기를 이용한 식도 문합은 수술 시간을 감소시키고 문합부 유출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단층단속 수기봉합보다 수술후 문합부 협착이 현저히 많았다. 문합부 협착은 풍선확장술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으나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협착의 재발이 있었다. 문합부 협착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층단속 수기봉합이 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.